

[상]

최현숙
리홍규
저

대호상

연변인민출판사

장편소설

대 홍수

상

리홍규, 최현숙 지

연변인민출판사

서 문

김봉용

장편소설 《대홍수(상, 하)》의 서문을 써달라는 리홍규선생님의 청탁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당황하였다. 그것은 리홍규, 최현숙 두 선생님은 우리 조선족문단의 대선배요, 이름난 소설가로서 그분들에 비하면 거의 자식벌이나 되는 아득한 후배가 서문을 쓴다는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기때문이다. 리홍규선생이 하도 간절하게 청하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대답은 하였지만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린다.

리홍규, 최현숙 두 부부작가는 광복후에 흑룡강성에서 나온 분들로서 해방초기부터 연변지구의 문화건설과 문예창작에 투신하여 혁혁한 성과들을 쌓아올린분이다.

리홍규선생은 문학창작에 정진하는 한편 연변문학예술계련합회, 연변문화국, 연변가무단, 연변문학예술연구소 등 중요한 기관들에서 령도사업을 담당하였고 최현숙선생은 해방후 첫 중국조선족 녀성작가로서 위망을 떨치었다.

리홍규선생은 혁명사업에 그토록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50년대 후반기에 억울하게 “우파”라는 정치감투를 썼으며 근 20년간이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 시였다. 문화대혁명기간에는 두분이 함께 농촌에 내려가 이른바 “개조”를 받아야 했던것이다.

고진감래라고 우리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정신의 빛발아 래 두분은 다시 광명을 보았으며 중단했던 창작을 다시 시작하 였다. 이번에 출간되는 장편소설 《대홍수》는 두분이 그동안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체험했던 농촌생활에 토대하여 “문화대혁 명”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대재난에 직면하여 조선족, 한족, 만 족 등 여러 형제민족들이 받은 시련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이 《대홍수》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대혁 명도 자연계의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회에 대재난을 갖다 준 일종의 “대홍수”인것이다. 작가는 이런 대재난에 직면한 부 동한 유형의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었고 연변 농촌 여러 민족 농민들의 애환을 심각하게 표현하였으며 여러 민족의 대단결만이 우리가 공동히 고난을 극복하고 광명하고 행복한 새 생활을 안아올수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고있다.

최현숙선생은 이미 타계하였고 리홍규선생도 80을 넘으신 고령이 되었다. 하지만 리홍규선생은 여전히 로익장을 과시하면 서 왕성한 정력으로 글을 쓰시고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최현숙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리홍규선생이 만년에 더 좋은 작품들을 써내여 독자들에게 선물할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09년 1월



서문 김봉웅 1

제1장 상두막	1
제2장 보복	22
제3장 방축공사	42
제4장 랍치	60
제5장 피신	81
제6장 홍수	102
제7장 삶과 죽음	121
제8장 비애	139
제9장 산 사람	156
제10장 무덤	181
제11장 돌아온 사나이	208
제12장 봉변	234
제13장 미궁	259
제14장 의외의 타격	282
제15장 락향간부	304
제16장 공작대의 첫 인사	330
제17장 잔혹한 투쟁	349

제1장 상두막

1

두만강은 자고로 동을 향해 흐른다지만 아마 그 누구도 강물이 동해로 가기까지 얼마나 에돌고 얼마나 굽이치는지는 딱히 모를것이다.

지도에서는 찾아볼수조차 없는 자그마한 땅 동강대대를 지날 때만 해도 북에서 남으로 사품치며 질주해오다가 마치 숨이라도 돌리려는듯이 남단부 굽인돌이에서 수심 깊은 소를 이루고 유유히 서쪽으로 역행하여 흐르고흐르다가 다시 동으로 돌아든다.

강가로는 푸른 버드나무들이 몽글몽글하니 덩굴을 이루고 한줄로 뻗어나가며 현대문명이 가져온 오염-두만강의 흔적을 가려주고있다.

강 건너 백사장아래에는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한벌 쪽 깔렸는데 그것들이 짹짹 내리쬘는 한여름 불볕을 받아 아물아물 열기를 내뿜고있다.

그 우거진 버드나무사이에 있는 모래톱에서는 두 소년이 제법 어른스레 물고기를 낚고있는양 버들가지에 낚시대를 얹어놓

2 대홍수(상)

고 끝을 돌로 지질러놓았다.

일남이는 동그란 큰 눈에 정신을 가다듬고 물위에 뜬 흰 낚시찌에 시선을 모으면서 물고기와 지렁이를 다룬 손을 물에 씻다가 낚시찌 한끝이 물속으로 쭉쭉 들어가는것을 보고 날렵하게 낚시대를 잡아챘다. 버들치 한마리가 허망 공중 들려서 강변 모래우에 와 떨어져 구불거리며 폴떡폴떡 뛰더니 전신에 온통 잔 모래를 들쓰고 나가 늘어져 입을 짹짹 벌린다.

런닝샤즈에 팬티바람으로 일남의 곁에 앉았던 쇼옹이는 일남이 낚은 고기를 바라보며 일남의 숨씨를 부러워하였다.

“넌 벌써 네마리째 낚았지만 난 한마리도 못 낚았다.”

“네 낚시엔 미끼가 없지 않니?”

일남이는 시선을 제 낚시찌에 모은채 입만 놀려 주의를 주었다. 쇼옹은 낚시대를 들고 팔을 뻗쳐 줄을 끌어당긴 다음 미끼가 없는것을 보았다.

“에이, 내가 정말 이때까지 헛낚시질을 했구나!”

“거 봐라!”

일남이는 히죽이 웃고있었고 쇼옹은 강통에 담긴 지렁이 한마리를 집어내어 손바닥에 놓고 오그린 다른 손바닥으로 딱딱 쳐서 조심스레 낚시에 켜 다음 낚시대를 휘둘렀다.

이윽고 쇼옹은 문득 생각난듯 고기잡이와는 다른 일을 말했다.

“...너 장한무와 박인걸선생을 알지?”

“알구말구, 빨건 완장을 달구 우쭐해 다니더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상두막을 태워버린다고 하더라.”

그제야 일남이는 귀가 벌쭉해서 쇼옹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어째서 상두막을 태운다더냐?”

“남은것을 짓부시는거래!”

“그것 참 멋들어진데! 우리도 가서 같이 불을 놔볼까?”

“우리 아버지 장한무랑 개지랄을 한다고 욕하더라야.”

“반란을 하는데 뭐가 나쁘단 말이나? 우린 ‘홍소병’이 아니냐?”

“아니야, 마서기도 그런짓은 반대한대!”

“그럼 우리도 장한무네를 반대하자꾸나.”

“어떻게?”

쇼웅은 자신이 없는듯 눈알을 데룩거렸다. 일남이는 씩 웃기만 하고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두눈을 반짝이며 쇼웅에게 물었다.

“언제 태운다더냐?”

“오늘저녁이라더라.”

둘이 말하는 사이에 일남의 낚시찌가 곤두서더니 자취를 감추고 낚시줄이 뿔뿔해났다. 일남이는 엉겁결에 낚시대를 잡아챘는데 낚시가 돌에 걸렸을 때처럼 꼬덕하지 않았다. 일남이는 계속 낚시대를 높이 쳐들었다. 낚시대는 활동처럼 휘여들었다.

“큰 고기다!”

옆에서 쇼웅이 웨쳤다.

아닌게아니라 팔뚝 같은 큰 고기가 끌려나오며 물우에서 푸덕이었다.

이것을 본 일남이는 어쩔줄을 모르고 잡아당기기만 하다가 돌아서서 낚시대를 한어깨에 메고 냅다 뛰었다.

쇼웅은 일어서서 부르짖었다.

“이면수다! 이면수다!”

4 · 대홍수(상)

큰 고기가 줄줄 거의 끌려나오다가 ‘찰싹!’ 하고 꼬리를 치더니 낚시에서 떨어져나갔다.

“아빨싸! 아야!”

일남이는 가벼워진 낚시대를 집어던지고 고기를 붙잡으려고 허둥지둥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놓친 고기가 그 자리에 있을 리 없었다. 일남이는 너무 아쉬워서 연신 “야! 야!” 하고 소리를 칠뿐이었다.

“일남아, 또 잡아보자.”

그제야 일남이는 낚시에 지렁이를 꿰여 물에 처넣은 다음 손에 낚시대를 꼭 쥐고 긴장하게 낚시찌만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쇼옹이도 정신을 가다듬고 고기가 물리기를 기다리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고기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인젠 고기가 다 달아난 모양이다.”

저으기 실망한 쇼옹의 말이다.

“쉬!”

일남이와 쇼옹은 민족이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르며 한마을에서 살지도 않지만 늘 서로 찾아다니며 노는 송아지동무다.

오늘도 일남이의 어머니는 일밭으로 나가면서 일남이더러 오후에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서 복습이나 하며 영애를 돌보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래서 일남이는 집에서 떠날념을 안했지만 쇼옹이 와서 고기잡이를 가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잠이 든 영애를 혼자 집에 남겨놓고 강으로 나왔던것이다.

“야 일남아, 이젠 틀렸다. 미역이나 감자꾸나!”

“난 싫다. 좀 있다 집에 가봐야겠다. 어머니가 알면 큰일난다.”

“괜찮아, 영애가 혼자 놀지 않으리.”

“안돼!”

“이젠 눈먼 고기도 없는 모양이다. 난 미역이나 감겠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쇼웅은 낚시터에서 뒤로 빠져 버들방천을 지나 우로 올라가 더니 모래불우에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침병 뛰어들어 갔다.

그 소리를 듣고 일남이는 우뚝 일어섰다.

“쇼웅아! 절대 깊은데 들어가지 마!”

“응, 알았다!”

쇼웅은 물이 열은데서 두손으로 땅을 짚고 두발로 물을 차며 한참동안 장난질을 하다가 성차지 않은지 엉거주춤하고 일어서더니 깊은데로 슬슬 걸어들어갔다.

“야 쇼웅아, 거긴 가마소다. 들어가지 말아!”

“걱정 말아! 난 헤엄칠줄 알아!”

순간 쇼웅은 갑자기 물속으로 쭉 빠져들어갔는데 물이 그의 목까지 올라왔다. 그제야 급해맞은 쇼웅은 솟구치려고 두손으로 물을 잡아두드렸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밀려들어가기만 했다. 머리가 물속으로 잠겨들어가자 수면에 물방울들이 꼬르륵거리며 솟아오르는듯했다.

“쇼웅아, 빨리 나오너라!”

얼굴이 파랗게 질린 일남이는 낚시대를 집어던지고 고향을 질렀다. 쇼웅은 물속에서 아래로 몇미터 밀려내려가다가 다시 물우에 솟구쳐 오르며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칠뿐 나오지는 못하였다.

일남이는 허리를 굽히며 두손을 부르짖고

6 · 대홍수(상)

“쇼옹아!” 하고 웨치며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을 쳤으나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의 물재간으로는 쇼옹을 따라잡을수 없었다. 일남이는 급해맞아

“쇼옹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 살려요!” 하고 웨치기도 하였다.

일남이는 죽기내기하고 쇼옹을 따라잡은 다음 그의 머리칼을 잡아쥐긴 했으나 어느새 가마소에 감겨들어 둘이 다 솟아나올수 없었다. 이제는 일남이가 아무리 모지름을 쓴다 해도 쇼옹을 끌고 나오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솟아날수 없게 되었다.

두 소년은 물속에 잠겼다간 다시금 뗏다 하며 곧추 아래로 밀려내려갔다.

강변에는 주인을 잃은 낚시대며 옷들이 호젓하게 놓인채로 있었다.

2

일발에서 일찍 돌아온 일남의 어머니는 집에 일남이는 없고 영애 혼자 구들에 앉아 울고있는것을 보고는 허를 끝끝 차면서 푸념을 했다.

“신신당부를 했건만 요게 또 영애를 혼자 두고 어디로 뺑소니를 쳤구나!”

이 말을 들은 영애는 울음을 툇 그치고 해쪽 웃었다.

“애 영애야, 오빠 어디로 가던?”

“난 잤어. 몰라!”

“그럼 널 재워놓고 간 모양이구나. 쯔쯔! 영애, 너 배고프지? 엄마 얼른 밥을 해주마!”

정순이는 팔을 걷고 시렁에서 쌀함박을 내리워 들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쌀독에서 좁쌀 한되박을 퍼담아가지고 나온 정순이는 물을 퍼넣고 쓱쓱 씻기 시작하였다.

저녁밥을 하는 사이에 밖에는 땅거미가 내렸다. 그때까지도 일남이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그제야 정순이는 걱정이 되어 일남이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근 40호 되는 동네를 다 돌았지만 일남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정순이는 일남이가 틀림없이 쇼옹이와 같이 놀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쇼옹이 사는 북툰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정순이는 문밖에서 쇼옹이 집에 없는가고 물었다.

“아주머니 오셨소?” 하고 왕금산이 말하니 그의 처 쇼춘이 달려나와 정순의 손을 잡아끌며 저녁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아니 난 지금 일남이를 찾아다니는중이요. 이 집 쇼옹이는 어디로 갔소?”

“어디로 쏘다니는지 우리도 지금 갓 기다리고있어요.”

“그럼 개들이 어디로 갔을가? 어서 들어가 저녁을 자시오. 난 가 봐야겠소.”

금산이네 부부는 문앞까지 따라 나와서

“이제 돌아오겠지요.”

“우리도 찾아보겠어요.” 하며 정순이를 배래주었다.

정순이가 집에 왔을 때도 일남이는 돌아오지 않았었다.

어느새 일남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나래가 돌친듯 온 동네에 짹 퍼져 마을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남이네 집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일남의 어머니나 동네사람들이 먼저 걱정하는것은 아이

8 · 대홍수(상)

가 물에 빠져죽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이 강변마을에서는 해마다 사람이 물에 빠져죽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기때문이었다. 하여 사람들은 삼삼오오로 갈라져 일남이를 찾기 시작하였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강물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썩썩 하는 물소리만이 요란스럽게 들릴뿐이었다.

3

일남이와 쇼웅은 물속에서 한덩어리가 되여 계속 허우적거리였다. 일남이는 최후로 한번 더

“사람 살려요!” 하고 웨쳤다.

이 위기일발의 찰나에 4대 만족대장 랑천생이 고기그물을 메고 강변을 지나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랑천생은 나는듯이 헤엄쳐 들어가 두 아이를 덥석 틀어잡고 물밑에 발을 붙이고 곳곳이 섰는데 물이 가슴을 쳤다. 그는 두 아이를 한어깨에 하나씩 메고 물가로 걸어나왔다.

일남이는 괜찮았지만 쇼웅은 물을 많이 먹은지라 정신을 잃었다. 랑천생은 쇼웅을 언덕에 거꾸로 엮어놓고 등을 눌러주었다. 한참 물을 토한 쇼웅은 급기야 정신을 차렸다.

“아저씨, 고마와요!”

일남이는 랑천생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제야 랑천생도 시름을 놓은듯 웃으면서

“고마울것 없다. 이후에는 조심해야 한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타이르고는 제 갈길을 가버렸다.

일남이는 함빡 젖은 옷을 벗어서 물을 짜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져 찬바람이 선들선들 불기 시작하였다. 두 소년은 으스스해나서 몸을 오그라뜨렸다.

“쇼웅아, 이담엔 절대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아, 응!”

“우리 둘이 물에 빠져죽었다면 어쩔뻔했니. 난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일남이는 버릇처럼 씩 웃고나서 쇼웅에게로 다가갔다.

“오늘일은 꼭 비밀에 붙여야 한다. 약속하지?”

“난 인차 집으로 가야겠다. 어머니가 알면 야단칠거야!”

“나두 쇼후네 집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마을쪽을 바라보던 쇼웅은 목을 움츠리고 혀를 날름하며

“야 일남아, 저걸 봐라. 너네 어머니가 벌써 집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조잘거렸다.

일남이는 쇼웅에게 낚시대를 주어 먼저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강변에서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데 땅거미가 내려도 옷은 젖은대로 있었다. 안달이 난 일남이가 마을을 바라보니 자기 어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는것이 보였다. 일남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찾는다고 생각하니 어린 생각에 욕먹을 일이 겹나서 감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남이는 자기 어머니가 언제나 강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더군다나 오늘은 영애를 데리고 놀라했는데 강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죽을뻔까지 했다는걸 아시면 노발대발하실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다.

그런대로 일남이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젖은 옷을 주어입고 강냉이밭 한가운데로 난 길로 줄달음을 쳤다. 그러다가 옷이 아직도 젖은채로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금이 저려서 종시 발이 나

가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강냉이밭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때 뒤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한쪽사양원 서아바이가 다가왔다. 일남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그가 보지 않으면 사양원아바이도 자기를 보지 않을것이라는듯이... 일남이 고개를 쳐드니 서아바이는 버스럭거리는 곳을 눈여겨보며 지나가는듯했다.

일남이는 서아바이가 틀림없이 자기를 알아보았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쿵 방아를 찧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일남이는 강냉이밭에 그냥 쪼그리고 앉았다가 큰맘 먹고 집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고 밭을 나와 길에 나섰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한데 이때 사람들이 느닷없이 횡불을 들고 나오며

“일남아! 일남아!” 하고 웨치는 소리를 들으니 또 더럭 겁이 났다. 온 동네에 소동을 일으켰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겠는가?

일남이는 도로 강냉이밭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강냉이잎이 몸에 스칠 때마다 와삭와삭 소리가 나니 누가 와서 단박 뒤덜미를 잡을것만 같았다. 일남이는 숨을 죽이고 내쳐 숨어있었다. 한데 이때 문득 낮에 쇼옹이 오늘저녁에 반란파들이 상두막을 불사른다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일남이는 옷이 젖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바엔 차라리 상두막에 가서 옷을 말리다가 장한무네가 오면 혼이나 내주고 집에 가 그 자랑이나 하면 어머니도 용서할거라는 엉뚱한 궁리를 하고 집쪽으로 냅다 뛰었다. 그가 밭소리를 죽여가며 집마당에 들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니 영애가 오도카니 상에 마주앉아 밥을 먹고있었다. 일남이는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싶었지만 가까스로 단념하고 고간에 들어가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아직도 축축한 바지주머니에 넣

은후 다시 한길에 나서서 북툰 동쪽 강변 둔덕에 자리잡은 상두막을 바라고 쓴살같이 내달리었다.

4

나지막한 지붕을 떠인 상두막은 어둠속에서 괴괴하니 형체를 드러내고있었다.

한데 상두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십여명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있었다.

그들은 장한무의 꼬드김에 큰맘 먹고 반란을 한다고 오긴 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머리에는 지난날 들었던 무시무시한 별의별 귀신이야기가 다 떠올라 감히 상두막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지금 그들은 상두막안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늙은 녀인이 곡을 하며 나오는것을 보는듯했고 물귀신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것이 분명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무리에서 떨어질세라 한덩어리로 굳어진채 그 자리에 못박힌듯이 서있었다.

어떤 사람은 감히 상두막문에 시선도 돌리지 못하였다. 대부분은 ‘천벌’이 내릴가 무서워 여기에 온것을 후회하고있었다. 그런데다 상두막안에서는 무엇인가 버스럭거리며 괴상한 소리가 나는듯싶어 등골이 오싹해남을 느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을 지를바엔 제격 지르고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지만 선뜻이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에게 비록 력사에 전례 없는 시대의 열광병이 전염되긴 했으나 순박한 농민들임을

12 · 대홍수(상)

속일수 없었다. 아니, 아직도 우매상태에서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에 열광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상두막안에서는 다시금 이름못할 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장한무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나 우두머리의 체신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성냥갑을 꺼내든 그의 손은 떨리고있었다. 그는 몇번이고 성냥을 그었지만 불이 일지 않았다. 그러자 박인걸이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켰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여 불을 붙여들고 헛호기를 부리며 상두막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 순간 상두막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나는듯하여 인걸이는 주춤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때 또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장한무, 거기서 뭘 하는가?”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장한무를 비롯한 무리들은 일제히 와들 놀라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장한무가 전지불을 켜들고 소리나는쪽을 비추었다.

한쪽지부서기 마청림이 혈떡이며 달려오고있었다.

박인걸은 불을 달려다말고 불타는 종이를 땅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밟아버리었다.

“마청림은 어쨌다고 이 야단이야!”

이렇게 뇌까리는 장한무의 앞에 다가온 마청림은 어둠속에서 장한무를 삼킬듯이 쏘아보았다.

“난 동무들이 정말로 상두막에 불을 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한데 보아하니 당신들은 ‘영웅호한’이 옳긴 옳소. 당신들의 안중에는 당의 정책이고 뭐고 다 없단 말이지?”

“홍, 정책!”